

성경
연구

STUDIES IN THE BIBLE

성경통신교육원(BCC) 소개

성경통신교육원(BCC)은 1964년 미국인 선교사 빌 램시(Bill Ramsay)가 설립한 비영리 선교기관입니다. BCC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마 28:19,20),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을 기르기 위해(딤후 2:2)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복음화와 성경교육을 위해 BCC는 1964년 당시 가장 보편적인 통신수단이었던 우편을 통해 “성경연구(Studies in the Bible)” 과정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6만여 명이 “성경연구”를 공부했으며 통신환경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bible.or.kr; bible.kr)으로도 많은 분들이 본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 성경연구 공과는 인위적으로 만든 교파교리나 신조를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교파교리가 아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

“성경연구” 교재는 국내외에서 보내주시는 선교후원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964년 BCC 설립 이래 저희 선교 사업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소개나 인터넷, 기타 경로로 “성경연구”를 접하시는 여러분 모두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처음의 바람이 알찬 열매로 결실 맺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차례

제1과	성경의 유래	7
제2과	성경의 올바른 분류법	12
	익힘문제	16
제3과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18
제4과	족장들	23
	익힘문제	28
제5과	광야의 방랑생활	29
제6과	가나안 정복	34
	익힘문제	39
제7과	통일왕국	40
제8과	분열왕국시대와 포로생활	45
	익힘문제	50
제9과	시문학서와 선지서	51
제10과	예수 그리스도	56
	익힘문제	61
제11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생활	62
제12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67
	익힘문제	72
제13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73
제14과	그리스도의 부활	78
	익힘문제	83

제15과 죄와 그 결과	84
제16과 예수 그리스도-죄 사함의 길	89
익힘문제	94
제17과 옛 언약과 새 언약	95
제18과 교회의 설립	100
익힘문제	105
제19과 바울의 전도생활	106
제20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자	111
익힘문제	117
제21과 구원을 얻는 믿음	119
제22과 성경적인 세례	124
익힘문제	129
제23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131
제24과 기독교의 권위	136
익힘문제	140
제25과 교회의 명칭과 통일성	142
제26과 교회의 예배와 재정	146
익힘문제	150
제27과 교회의 조직과 임무	152
제28과 성령	157
익힘문제	162
제29과 그리스도의 재림	164
제30과 영원한 형벌과 보상	168
익힘문제	173

제 1 과

성경의 유래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그 책(the Book)”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같이 칭하는 이유는 그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Bible)”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명의 저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방법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알려진 두 개의 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 세 배나 분량이 많으며 기록도 그리스도의 탄생 400여 년 전에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양피지)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들어진 종이 위에 손으로 써놓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천 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느헤미야 8:5) 최초의 훌륭한 구약 번역서는 주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것으로 셉투아진트(70이라는 뜻)라고 불립니다. 그 까닭은 아마 70명의 학자들에 의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희랍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여덟 사람이 희랍어로 기록한 것인데 대부분의 저자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일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제국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제국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시나이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 사해 근처의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최근의 구약 번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밖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Vulgate)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은 희랍어 원본보다는 불

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희랍어 원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의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 가며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최초로 준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성경의 뜻과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존 위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한 것입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훨씬 빠르게 성경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하여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고, 그 자신도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사형대에 올라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최후에 “주님이시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마일스 커버데일이 처음으로 성경전서(全書)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결국 영국 왕의 눈도 뜨여서 당시의 저명한 학자 54명으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킹제임스판(King James Version)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1611년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되는 영어 번역본 중의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킹제임스판(New King James Version)이 출판되었습니다.

킹제임스판(KJV)이 나온 후에 다른 몇 가지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킹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하여 영어개정판(English Revised

Version)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번역판은 190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를 미국 표준판(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개정한 개정 표준판(Revised Standard Version)이 1952년에, 그리고 신 미국 표준판(New American Standard)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된 것들입니다. 또, 1978년에는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이 출판되는 등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즈 듀아이 가톨릭판(Rheims Douai Catholic Version)의 역본은 1582년에 출판되었는데 그것은 1970년에 New American Bible로 대체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으나 구약에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책을 가리켜 외경(Apocrypha)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희랍어로 쓰였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인 J.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하였습니다. 1882년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하다가 1887년에 이르러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을 완역하여 간행했는데 이것을 “로스 번역(Ross Version)”이라고도 합니다. 국내에서의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을 완역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1904년에 개역, 1906년에 재수정하여 공인역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완역되었고, 1911년에 신약을 포함하여 “성경전서”로 합본, 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공선 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을 대한성서

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감동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고전 2:13).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 보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특색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예언적으로도 정확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주며,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제 2 과

성경의 올바른 분류법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본 장에서는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올바른 분류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으며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했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는 방법 등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보다 신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44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구약을 크게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신약은 사복음서, 초대교회의 역사, 바울서신, 일반서신과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책들

구약의 처음 5권은 율법책들입니다. 이를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이 5권은 모세가 쓴 것이며, 인간의 시초와 그들이 살아 나간 초기의 역사를 더듬어 살핀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

하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 홍수, 그리고 족장시대의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를 알려 줍니다. 그 시대에는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각 종족별로 나누어 족장들이 자기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족장시대(직접 계시시대)라고 합니다. 거국적인 예배(제사)제도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야 실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후에 유대인으로 불림)이 애굽으로부터 구출된 사실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들의 방랑생활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당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 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를 모세시대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 12권은 유대 민족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들의 일부가 어떻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입니다. 이 책들 중에는 저자가 미상인 것도 있습니다.

다음 5권의 시가집들은 일반적으로 헌신과 훈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가들은 번역할 때 운율이 없어져 시 같은 느낌을 주지 않지만 성경 중 가장 애독되는 책들에 속합니다. 이 시가집에는 율기(저자 미상임), 시편, 또는 찬미의 노래(주로 다윗이 기록한 것임), 잠언, 전도서, 아가서(이 세 권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편 23편은 이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훈계보다 더 훌륭한 지혜의 말을 찾지 못합니다. 율기는 한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자식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함으로써 갑절이 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선지서(예언서)는 보통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대선지서는 보다 긴 내용의 글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애가서를 제외한 모든 선지서들은 그 내용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권의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이며,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책들 보다 그리스도의 강림(초림)에 대하여 많이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적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 외에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때의 일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선지서들도 유대와 이웃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말라기서로 구약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신약의 여러 책들

신약의 처음 4권은 저자들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붙인 것으로,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 책들은 그리스도(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이 책들에는 각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에 대하여 충실히, 그리고 완전하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세시대(율법시대)는 끝나고 세상 끝까지 지속될 그리스도시대(은혜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과정과 사도들의 전도활동, 초대교회의 역사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권의 책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말해 주는 서간집입니다. 몇몇은 개인에게, 몇몇은 여러 회중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처음 14권은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와 히브리서(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부정하는 사람도 많음)입니다. 다른 7권의 서신은 바울서신과 구분하여 일반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서신들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와 유다서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표제로 붙였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계 1:1) 어느 부분은 상징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은 매우 고귀하며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을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귀중하지만 신약은 구약보다 우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반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힘문제

제 1·2 과

1. 다음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세요.

- (1) 성경의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27권 ② 39권 ③ 66권
- (2) 성경을 쓴 사람은 약 몇 명입니까?
① 8명 ② 40명 ③ 70명
- (3) 바ibles(Bible)은 무슨 뜻입니까?
① 책 ② 판 ③ 원고
- (4) 구약은 어느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① 희랍어 ② 영어 ③ 히브리어
- (5) 신약은 어느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① 히브리어 ② 희랍어 ③ 라틴어
- (6) 최초의 훌륭한 구약의 희랍어 번역서는 무엇입니까?
① 70인역 ② 불가타 ③ 킹 제임스역
- (7) 킹 제임스판은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① 1952년 ② 1611년 ③ 1382년
- (8) 외경(Apocrypha)은 무슨 뜻입니까?
① 책 ② 근원이 의심스럽다 ③ 양피지

2. 다음 성경 구절의 빈 칸을 채우세요.

- (1) 오직 ()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
- (2)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 가르친 말로 아
니하고 오직 ()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고전2:13)
- (3) 모든 ()은 하나님의 ()으로 된 것으로 교훈
과 ()과 ()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딤후 3:16)

3.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솔로몬이 쓴 세 책은 (), (),
()입니다.
- (2) 구약성서의 5구분은 (), (),
(), (), ()입니다.
- (3) 신약성서의 5구분은 (), (),
(), (), ()입니다.
- (4) 모세 5경이라고 칭하는 모세가 기록한 책은 (),
(), (), (),
()입니다.
- (5) 계시록은 ()이 기록한 책입니다.
- (6)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회개의 책이라고도 불리는 책은 ()입니다.
- (7) 복음이란 뜻은 () 또는 ()입니다.
- (8)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입니다.

4.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로 답하세요.

- (1) 우리는 오늘날 족장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 (2) 요나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초림)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했기 때문에 종종 메시아적 예언서라고도 불립니다. ()
- (3) 성경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세 권밖에 없습니다.
()
- (4) 신약 성경의 21권의 서간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방법을 말해줍니다. ()
- (5)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6)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에 대한 기록을 역대하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제 3 과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구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항상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도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능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라고 말했습니다.

천지 창조

그 “태초”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억측하는 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 천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과 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여 이것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케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 보여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므로 그를 하와라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부부에게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지워주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2:17).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숨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결과, “죄는 불법이라”(요일 3:4)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형벌은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영적 죽음(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날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가 아담의 죄나 부모의 죄를 이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지지 쉬운 연약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각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우리가 자신의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집인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구속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활김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죄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창 5:4). 그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여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땅 위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의 길을 걸으며 살아 온 것 외에는 그 후 얼마동안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므두셀라로 969년이나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홍 수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은 저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의를 전파한 노아”(벧후 2:5)라고 불렀습니다(역자 주: 영어성경에는 “pr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의의 전도자”라는 뜻임).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려고 노아에게 방주(배)를 만들도록 분부하시고 그 크기와 규모 등을 일러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대로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분부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방주가 좁아서 어떻게 그 많은 종류대로 짐승을 잡아넣을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층이나 되는 큰 배였습니다.

노아,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는 방주에 들어가 7일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구원 얻는 세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0~21).

물은 땅 위에 150일이나 창일했습니다(창 7:24). 그 물이 차차 줄어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결코 땅 위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표로 공중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성경의 첫 번째 시대인 홍수까지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 시대를 보통 “홍수 전 시대”라 부르고 그 후를 “홍수 후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흠어지는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흠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북으로 가게 되었는데 유럽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 자손들일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및 애굽과 기타 지방에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셈은 유대 민족을 포함한 셈 족속의 조상

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셈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사실들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제 4 과

족장들

지난 장에서 성경을 통하여 천지창조로부터 홍수에 이르기까지 홍수 전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홍수 직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장들의 생활과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위대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를 공부합니다.

족장이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을 위대한 족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스라엘의 후손 혹은 유대인으로 알려짐)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족장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셈의 직계 후손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갈데아 지방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당시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렸음)을 선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에게 친척들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창 12:1~7). (1)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드시리라 약속하심.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심.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3)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심. 팔레스틴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향이 되게 하셨습니다. (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시리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인접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동안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5)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브라함의 생활이라든가 그의 조카 롯이 그로부터 떠나 소돔이라는 사악한 도시에 살게 되었던 때의 일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그곳에 살고 있으므로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10명의 의인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살라 버리려던 그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출생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할 때 나타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예는 아마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신 후 이삭의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 막벨라 굴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 곁에 매장되었습니다.

이 삭

족장들 가운데 둘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가까운 친척인 리브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들 중 동생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곱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말은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팔죽 한 그릇으로 샀으며(창 25), 마땅히 그의 형에게로 계승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였습니다(창 27). 이렇게 함으로써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 될 사람은 그를 속여 라헬의 언니 레아를 대신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과 29장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열두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이야기는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잘 보여집니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

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으며, 마침내는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요셉이 살해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7년간 풍년이 있을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을 예시하는 임금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중요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풍년에 곡식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기근이 든 해에 내놓는 등 왕을 보좌하여 국사를 잘 처리하였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은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구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 버렸던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애굽에서의 노예생활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많이 번성하여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인구가 70명에서 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출 12:40) 그 사이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지금까지의 좋은 지위를 더 이상 지속시켜 주지 않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여 이들을 노예생활로부터 구하려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갓난아이인 그를 살리기 위해 작은 배를 만들어 강물에 띄웠던 사실, 왕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왕자로 양육한 일, 그가 왕실의 생활을 버리고 백성의 인도자로 나온 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생활에서 구해 낸 일 등입니다.

모세와 그의 대변인이 된 형 아론은 바로 왕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였으나 왕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땅 위에 내려 바로 왕이 후회하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 중 가장 처참한 것으로,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심지어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도 남김없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힘문제

제 3·4 과

1. 다음 중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4)

- ① 법을 어기는 것(불법) ② 양심을 무시하는 것
- ③ 부모의 죄로 인한 저주

2.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베드로는 물로 인한 노아의 구원을 ()와 비교했습니다. (벧전 3:20~21)
- (2) 노아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 6:14)
- (3) 첫번째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
- (4)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
- (5)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깊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2:1~7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구절의 빈 칸을 채우세요.

내가 너로 큰 ()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을 쌓고.

광야의 방랑생활

애굽을 떠남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방랑생활로 들어가기 전 애굽을 떠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이 있은 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최후의 잔치를 가진 후 애굽을 떠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뒤따르는 것을 알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실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명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로 건넌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사실을 가리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2)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한 세례란 구름과 바다 안에서 완전히 잠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세례의 방법과 같은 것으로 물 속에 완전히 잠기거나,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롬 6:4, 골 2:12).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다

애굽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편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펴자 바닷물이 합쳐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 군대들은 모두 바닷물 속에서 전멸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만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몇 주일 동안 동남쪽으로 사막을 걸었습니다. 사막을 계속해서 걷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면해 주기 위해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출 16). 르비딤에서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출 17).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섭리를 배웁니다.

마침내 이 백성들은 시내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 산에 다다랐습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으로 십계명을 쓰신 돌판 두개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40일 후에 모세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의 청에 따라 그들이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이토록 쉽사리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몇 주 전에 노예생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모세는 노하여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쳐서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 날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간을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 받았습니다. 모세는 돌아와서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이를 선포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50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모세시대라고 합니다. 모세 이전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를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세 시대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의 모든 면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민법, 형법에 관계된 모든 법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은 또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종교 활동을 주관하였으며 삶의 도덕적 기준을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모세 율법의 기본은 십계명입니다. 이 도덕적 계명은 (1)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2)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규정짓습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제외한 다른 계명들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교훈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된 아홉 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모세 율법이기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골 2:1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안식일 또는 제7일(토요일)을 지키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 20:7, 고전 16:2, 계 1:10).

율법에는 1년에 세 가지의 큰 축제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4월경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로서 추수가 끝날 무렵인 유월절 50일 뒤에 있는 축제일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조상들이 방랑생활 하던 것을 기념하려 광야에 나가서 7일간 나뭇가지로 만든 오막살이 안에서 지내는 축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방랑하는 기간에 예배장소로 사용할 성막, 즉 운반하기 쉬운 조그마한 천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족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 가운데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물 중 중요한 것은 (1)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다는 번제물과 (2)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화목제물과 (3) 죄로 더럽혀진 인간임을 시인하는 속죄물입니다.

방랑의 40년간

율법을 제정한 후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땅은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고향이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곳의 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대해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을 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이나 헤매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외에 40년간의 방랑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반도 이곳저곳을 유랑했다는 이야기와 아론과 미리암(모세의 누이)이 모세를 비방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문둥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야기(민 12장), 모압족의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시도한 이야기(민 22~24) 등은 모두가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광야 생활 중 모세도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

위를 향하여 말하지 않고 그것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것이 되므로 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하신 땅을 바라 본 후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12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방랑생활의 기록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시작하여 신명기에서 끝이 납니다.

가나안 정복

지난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부에 이르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 가나안 정복(1장~12장), (2)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13장~22장), (3)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23장~24장)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 여리고성으로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적을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물이 불은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에 아마 그들은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 번 반복되어 하나님께서는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마른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수 3:17). 이렇게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

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내려 성밖으로 무너졌지 성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만일 그 성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 군인들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수 7).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 지방의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들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분격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 다섯 왕이 한 편이 되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 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수 10)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의 하나입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의 군세 앞에 31명의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루우벤 및 므낫세 반(半)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정탐꾼 12명 중의 한 사람이었던 85세 된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후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정주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세겔이라는 곳에 모아 놓고 고별연설을 함으로써 이 책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는 말로 연설을 끝맺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사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하여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12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BC 1401~1100) 일곱 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여호와와 일곱 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 사사들(모두 15명)에게 주어진 권능은 임금의 것이기보다는 목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몇몇 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 17:6)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우상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2) 가나안 정복 때의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므로 저들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기억치 못하였습니다. (3)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만 힘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고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하였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슬피하는 것만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룩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들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삿 4~5).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삿 7:7).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삿 11:34).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기운이 세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대전하기도 했습니다(삿 14:16). 최후의 위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일하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고 이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룻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롯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롯기를 어떤 사람은 사사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과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새로운 집으로 간 한 젊은 모압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롯은 보아스와 재혼을 하여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가 된 것입니다. 롯기를 읽어보십시오. 읽는 데 몇 분 걸리지 않고 읽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익힘문제

제 5·6 과

1.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간을 ()시대라고 부릅니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오던 세 가지 축제일은 (), (), ()입니다.
- (3) 만일 ()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2. 사사기 7:1~23에 있는 기드온과 그의 용감한 300명 군사에 관한 이야기와 사사기 16:4~21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로 답하세요.

- (1) 기드온의 군사는 나팔과 향아리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
- (2) 기드온과 그 군사가 나팔을 부니 미디안 사람은 도망했고 이스라엘군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
- (3)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찌기 위하여 밧세바라는 여인을 택했습니다. ()
- (4) 처음 어떤 여인이 삼손을 유혹하려고 시도할 때에 그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푸른 칙닝쿨 일곱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

제 7 과

통일왕국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통일왕국 시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을 포함한 주전 1095년에서 975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사무엘상·하 및 열왕기상 1~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하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스라엘의 초대 왕

우리는 이미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 수 백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젊은이를 왕으로 세워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 만세!'를 부르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

에는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곧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압몬, 블레셋, 모압, 에돔과 기타 족속들이 침략해 올 때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선두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오르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보다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삼상 15:22)는 말로 사울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은밀히 사울의 계승자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역시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 큰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심령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위로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의 병기를 간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우연한 기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적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받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이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자기가 왕위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 자기 아버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와의 싸움터에서 불행히도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윗-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사울의 불쌍한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땅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통치는 7년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패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택하여 수도로 정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행 13:22)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했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많았지만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불의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밧세바가 요부형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꾀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비밀스런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서 작은 양양의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케 하셨습니다(삼하 12장).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개 하였으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형제 암논

을 살해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동안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운 왕국을 바로 잡기는 했지만 이것도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아들들의 손에 왕국이 넘어 가기 바로 직전 다윗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아들들에게 지쳐서 평화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의 통치는 40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지혜에서 우상숭배까지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통치와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세 가지를 다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5개의 시가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세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음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헤아릴 수 없는 부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400개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은 장막 안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건물로도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만에 걸쳐 183,000명의 사람이 동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와 같은 거대한 부귀는 결과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습니

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욱 나쁜 것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우상숭배를 허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향락을 누리는 비용을 백성들로부터 착취하였습니다. 세금을 몇 배씩 과중하게 부과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부로 시작된 그의 통치가 술과 여자와 노래로 끝날 무렵에는 그 자신도 환멸을 느꼈고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위대했던 왕국에 분열의 씨를 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제 8 과

분열왕국시대와 포로생활

솔로몬 왕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388년간 계속된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위대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배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짓는다는 구실로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토록 간절하던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장군이었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르호보암은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찌라”(왕상 12:14)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열 지파는 드디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일어났습니다. 새로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부터 여로보암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은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지파를 남방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와 지역이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253년간 존속하였고 19명의 왕이 나와서 통치하였는데, 이들 중에 한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무서운지를 모르는 왕들뿐이었습니다. 왕들끼리도 서로 모함을 하고 반기를 들어 살해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떠난 것을 후회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의 집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흠으시리니” (왕상 14:15). 과연 200년이 조금 더 지나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우상숭배는 더욱 성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제 7대 아합 왕 때에는 바알 신 우상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80년간이나 남방 유다와 전쟁을 계속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하였으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오르자 이런 백성들을 건져 주기는커녕 다시 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었습니다. 즉,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우상숭배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에서 가장 요염하고도 파렴치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알 신을 가져와 섬길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부인의 간악한 꾀에 넘어간 가장 어리석은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서 우상숭배를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의 무가치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혼자 바알 신의 예언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어느 신이 참인가를 증명하는 겨루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세벨은 독기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예후일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는 참다못하여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신을 파괴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못가서 불타던 열심이 식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파괴시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후 다음의 왕들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멸망시켜 버린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722년 그 당시 강대국인 앗시리아 군대를 시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앗시리아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보다 작고 힘도 약하였습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애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 악한 왕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왕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 건립 초기부터 나라가 부패하였고 힘이 약하였습니다. 남방 왕국도 이미 르호보암 왕 때 기운이 쇠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사 왕, 여호사밧 왕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와 다시 크게 부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부흥할수록 쉽게 타락하듯이 남방 유다도 곧 이스라엘로부터 바알 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 우상숭

배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전부 때려부수기 전까지 유행하였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과 그의 손자 요시아 왕이야말로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간이나 통치하였는데 갖가지 우상을 다 도입시켜 만들었으며 번성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죽이는 참혹한 짓까지 즐겼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가 이러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왕하 21:10~15). 요시아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잃었던 율법 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자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는 또 다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의 모든 왕들은 다 약하고 악한 왕들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유다는 바벨론의 위성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은 약 100년 전에 앗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간 것과 꼭 같았습니다. 남은 백성들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렸지만 약 20년 후에는 이들과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기원전 587).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은 유다 민족에게 큰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생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중의 하나이지만 많은 역사 이야기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바벨론의 유대인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당시 유대인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좋은 한 유대 여인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귀 환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536년에 제 1차로 스룹바벨이 많은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습니다. 돌아오자 그는 우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는 80년 후에 제 2차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 3차로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 왔는데 이들은 돌아와서 먼저 예루살렘성의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였다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때 모든 사람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건설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기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 보다 강한 바사(페르시아),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 이외의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익힘문제

제 7·8 과

1. 다음에 해당하는 왕의 이름을 빈 칸 안에 적으세요.

- (1)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 (2) ()왕의 아들 압살롬은 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 (3) ()왕의 통치 기간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2. 열왕기상 18:17~40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로 답하세요.

- (1)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나타나고 물었습니다. ()
- (2) 바알 선지자의 수는 275명이었습니다. ()
- (3)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신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
- (4) 바알의 선지자들은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
- (5) 엘리야는 돌 여섯으로 여호와의 단을 쌓았습니다. ()
- (6) 엘리야는 통 냇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 위에 세 번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
- (7)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

시문학서와 선지서

시문학서

시문학서는 읍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합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박자나 운율보다는 리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이 시문학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외에도 그와 비슷한 다른 여러 개의 시편도 다윗의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읍기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읍기에서는 읍이라는 의인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몸까지 쇠약해졌지만, 끝까지 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읍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읍의 친구들과 당사자인 읍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읍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결국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더욱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책은 시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의 시편이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Psalm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 어떤 것은 찬송 가사에 인용되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

들이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은 본래 5부로 나뉘어 있었지만 현재는 한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23편의 경우 성경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17편은 가장 짧지만 성경의 맨 중간에 있는 장이고,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고 잠언은 중년기 때, 전도서는 그의 말년에 썼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인 듯 싶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상당수 우리에게 익숙하여 생활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전도서에는 성경에서 가장 염세적인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다가 실패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전 1:2)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선지서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했을 때, 즉 어지러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제사장이었고 일부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종종 상징과 비유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나무의 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이사야 11:1). 모든 선지자들이 다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이지만 우리들에게 어떤 책도 남겨 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사실보다 미래의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저서는 어느 정도 역사성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실

린 대부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니느웨성과 바벨론(바빌로니아)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점, 그리고 성경이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17개의 선지서 중에서 9개의 선지서는 남방 유대 민족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2개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4개는 남방 유대 근방에 있는 이웃 나라에 보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은 모두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나라들에게 만일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한 책들입니다. 이 책에는 유대 민족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중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야가 나신다는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메시야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다른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잠정적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선지서

이사야는 대선지서의 저자 중에서 가장 주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야의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메시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연대를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가장 아름다운 장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애가서라는 책 이름 자체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설교했으며 때로는 투옥도 당하였습니다.

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쓴 책은 매우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바벨론 정부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바벨론과 바사(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 2:44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함으로써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소선지서

요엘은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처음에 니느웨성은 회개하였으나 그로부터 15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성에 나훔을 다시 보내 죄악을 회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바다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향해 예언하였는데,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한 장밖에 한되는 짧은 책입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는데 그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 및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불성실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바냐와 미가는 유다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고,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생활 초기에 살았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라는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해 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유대인들의 헛된 예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하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은 끝납니다.

제 10 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동안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전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 그리고 그의 교회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기 네 명의 저자들의 위치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된 복음서도 있고 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즐겨 인용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하신 업적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누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관

심을 가진 예수님의 자비를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증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31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한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요한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를 항상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를 세례요한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사야는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 3:3).

그는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도했고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장차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데 용감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 하도록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준 후에 그는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권위와 일들을 삼가고 물러섰다가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목 베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 보다 큰이가 없다”(마 11:11)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례요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재(先在)하심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4~17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서기 연대를 측정할 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오차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였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습니다.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잠정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 5:2). 당시 로마의 황제는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고향인 베들레헬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여관방마저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묵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강보에 싸여 말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헬으로 왔으며, 어떻게 목자들이 어린 아기를 보러 왔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헬 근처에 왔을 때 헤롯 왕에게 어디에 새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성

경에는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때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미 5:2) 말씀을 두려워한 헤롯 왕은 어린 새 왕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까봐 겁을 먹고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마을에서 태어난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의 대부분은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생애 후기의 교훈은 요단강 너머 유다와 베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12살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가셨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아다닐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모세 율법의 어려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그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세례

삼십 세 되던 해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마 3:15)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함이지 결코 그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38에 보면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마 3:16). 어떤 그림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물을 떠서 뿌리는 모습으로 세례를 묘사했지만 마태복음 3:16과 마가복음 1:10~11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0~11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사역을 시작하심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티끌만한 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게 한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셨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는 자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업의 터를 닦으셨습니다.

익힘문제

제 9·10 과

1.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 (1) 성경에서 가장 긴장은 무슨 책 몇 장입니까? ()
- (2) 자기가 소유한 전 재산을 다 잃어 버렸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 (3) 현명한 지혜의 말들을 수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
- (4) 구약에는 몇권의 예언서가 있습니까? ()
- (5)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
- (6) 메시아의 예언자란 누구를 가르킵니까? ()
- (7)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
- (8) 니느웨 성에 대해 예언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 ()

2.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은 사건은 마태복음 3:13~17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고 빈 칸을 채우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강에 이르러()
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 달려 가로되 “내가 당
신에게 ()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
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
한이 ()하는 지라 예수께서 ()를 받으시고 곧
()에서 올라오실새 ()이 () 하나님
의 ()이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
시더니 ()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
들이요 내 ()자라 하시니라.

제 11 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생활

예수님이 친히 전도생활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밖에 안됩니다. 이 기간에 그는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애가 끝날 무렵엔 붙잡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전도의 중심지로 삼고 일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북방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니고데모와 함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관한 유명한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물을 길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오랜 시간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전도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약 2년간 머무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한 번 팔레스틴을 떠나 베니기아에 간 적이 있으십니다. 아마 이것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돌아오신 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외국 여행일 것입니다. 갈릴리 전도 초기에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놀랍게도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부터 그의 교훈을 듣기 위해, 혹은 병 고침을 받기위해 나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뒤따랐습니다.

이 여행 중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위에서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해질녘까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신 적도 있습니다. 4000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정말 영의 양식을 갈망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군중을 피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호숫가를 돌아서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존경하여 따라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세리와 창기도 사랑하여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비난할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도 희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위해 장막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권위를 최상의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나

그가 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임을 배우게 된다.

유대와 뵈레아 전도

갈릴리에서 2년간의 전도생활을 마친 후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이전부터 바리새인들은(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유대인 그룹) 그에게 도전하려 하였습니 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보내어 교묘히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커서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후에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뵈레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곳과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 두 지방을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인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도들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은 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당신의 일을 계승할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란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뒤에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데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각각 형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전에는 세리였던 사람으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라고 불린 시몬과 야고보의 동생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롯 유다가 있

습니다. 12제자 중 대부분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제자로 훈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에 따라 그들을 병자도 고치고 전도 하도록 보내는 등 제자들이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등한시 하고는 그의 생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의 가르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을 보여 주는 이적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한 이적이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35번 중에서 17번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열병에서 건지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에 장님인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는 등의 이적을 말합니다. 6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이적입니다. 3번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9번이나 자연을 정복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심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 등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만 이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르침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칠 때에는 그 즉시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지 결코 오늘날과 같이 일주일이나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신앙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친다는 자들이 정말로 이적을 행한다면 그 병자의 믿음이 어

떠하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신약 성경은 오순절 날 교회가 세워질 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일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큰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행 8:1). 사도행전은 팔레스틴에서의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요한의 초기 전도 행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는 목메어 자살했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제자의 죽음에 대해 기록된 것은 오직 주후 44년에 헤롯에 의해 순교 당한 야고보의 이야기뿐입니다(행 12:2).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제자들이 온 땅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후 말년에 밧모 섬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1세기 말에 자연사했습니다.

제 12 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가 행한 이적도 위대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더욱 훌륭합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과 연관시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많은 교훈을 비유로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교훈이 들어있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11~32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로 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청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길 잃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 27개에서 50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인간에 관한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 또는 인간과 친근한 사물을 주제로 한 비유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전형적인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

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맺고 다른 곳에 떨어진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후 그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뜻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가 자라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고, 결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질문 형식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한번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50)고 가르치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적대자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다시 하심으로 오히려 적대자들을 곤경에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등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참된 위대함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그 방법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에서든지 언제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12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삶의 새로운 방법은 어떤 이방 종교나 모세의 율법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교훈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 설교”일 것입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 설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7~8) 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자 혹은 명성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 6:19~20)는 가르침을 통해 주님은 참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지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혹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히브리인의 욕설 중에 하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1~22)고 가르치셨으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마 5:32). 맹세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마 5:34~35).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무저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38~39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 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하기 어려운 교훈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전도생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비유 중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단 2:44). 유대인들은 잠정적인 그들의 왕국을 찾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는 교회이며(마 16:18~19), 곧 세워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나라(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님께 충성된 모든 자들이 거할 처소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처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 13:42)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이 무서운 종말로부터 건져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바로 살라고 외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도덕적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죄에서 건지려 오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은 허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

수님의 교훈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성을 지녔다는 것을 증거 합니다.

예수의 초대

구세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억지로 그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셨는지요?

익힘문제

제 11·12 과

1. 다음 성경 구절의 빈 칸을 채우세요.

- (1) 너희는 ()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 (2) 나는 세상의 ()이니라. (요 8:12)
- (3) 나는 참 ()라. (요 15:1)
- (4)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
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눅 9:62)
- (5) ()을 받지 아니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 7:1)
- (6) ()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으니라.
(마 7:13)
- (7) 사람이 ()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 (8)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을 잃으면 무
엇이 유익하리요. (막 8:36)

2. 다음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각각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성경을 읽고 답하세요.

- (1) 마태복음 13:44 ()
- (2) 마태복음 25:1 ()
- (3) 마태복음 13:31 ()
- (4) 마태복음 13:33 ()
- (5) 마태복음 13:47 ()

제 13 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도 이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들의 삼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 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때때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게 될 것을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진정한 나라는 잠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군중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마 21:9)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잘못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치기 불과 닷새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돈을 바꾸

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던 곳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반대자들로 하여금 그를 죽일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그 다음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유월절 만찬

배신당하시던 날 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이 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면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을 떼시고 그 후에 잔(포도즙)을 취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마 26:26~28).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몸과 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먹으라 하신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룩 없는 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겻세마네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애써 기도하며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을 떠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일단의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께 “랍비여,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잠시 베드로가 흥분하여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으나 곧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 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 문

그리스도가 당하신 심문은 재판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안나스에게서 다시 가야바 앞으로 끌려 오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사형당함이 마땅하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어두운 한밤중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먼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후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해가 돋은 후 예수님은 유대인 공회에 끌려가 거기서 가야바의 판결에 대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갈릴리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헤롯왕도 그를 빌라도 총독에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무죄함을 알고 놓아 줄 방법을 모색했지만 유대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백한 그를 죽이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흥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그의 머리를

치고 십자가 위에 못 박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불리고 희랍어로는 “갈보리(해골이란 뜻)”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목요일이라는 설도 있음)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에 달렸는데 그것은 그를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암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의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심으로써 곧 다시 밝아졌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곱 말씀에서 그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병정들과 구경하는 백성들과 비웃는 관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 육친의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3)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5) 정오 때쯤 되어서 “나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 3시경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그가 운명하실 때 땅이 떨며 지진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아리마테 요셉이 몇 명의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부자인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곧 밤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미처 하지 못한 일은 안식일(토요일)이 지난 후에 하기로 결정하고 장례 일을 마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 갈까봐 병정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다음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 14 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6). 이 말은 안식 후 첫 날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전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안식일을 쉬고 미처 못 다한 장례 일을 마치기 위해 무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여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말하기 위해 갔습니다. 즉시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의 보고를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 갔습니다. 얼마 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홀연히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즈음에 예수님은 다른 여자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십자가 사건 후에 절망에 사로잡혔던 사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곧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시골길에서 그리스도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게바(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입니다.

그날 밤, 문을 닫은 방에 모여 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몸의 상처를 보고는 앞에서 계신 분이 그들과 같은 육체를 가진 주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먹음으로써 살과 뼈가 없는 영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눅 24:43).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사도들, 특히 도마를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11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고전 15:6~7). 부활하신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며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의 중요성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 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 15:14~17).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빈 무덤의 빛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중요성은 부각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가능성도 증명해 줍니다. 그가 자기의 죽음을 정복하셨다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떼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옛 언약과 그 율법도 그 역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1500년 동안 지배했던 모세 시대(율법 시대)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 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골 2:14). 그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등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대 사명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관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유대 땅으로만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명하셨지만 지금 그가 주시는 새 사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 사명에 대한 세 가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 다음 표는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요약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라.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는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는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정치, 과학, 혹은 경제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또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달리 복음은 인종, 국가를 망라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조건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사함을 받는 축복은 세례의 결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6:16).

이 사명에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끔 개종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배워야만 합니다.

익힘문제

제 13·14 과

1.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 (1) 예수에게 입을 맞추고 판 자는? ()
- (2) 누구에게 예수님은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까?
()
- (3) 누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까? ()
- (4)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사형하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

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각 말씀이 기록된 성경구절을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 (1)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
- (2) 내가 목마르다. ()
-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
- (4) 다 이루었다. ()
- (5)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
- (6)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 (7)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보
기

- ① 눅 23:46 ② 요 19:26 ③ 눅 23:34 ④ 요 19:28
⑤ 막 15:34 ⑥ 요 19:30 ⑦ 눅 23:43

제 15 과

죄와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또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요일 3:4). 범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행악이란 도덕적 표준과 사람의 관습을 어기는 것이지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란 문자적으로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적이므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간음, 술 취함 등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지적하는 죄이지만 다른 죄들, 이를테면 도박 등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비춰볼 때 이것은 죄입니다. 요한은 육신으로 좇아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였습니다(요일 5:17).

태만(怠慢)도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

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들은 병자를 문병할 의무가 있는데(마 25:36) 찾아가 보아야 할 병자가 있는데도 문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가 명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만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약간의 동물들과 아말렉 왕을 살려 준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므로 그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주님의 만찬에 쓰일 재료로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닭튀김이나 오렌지 주스 등으로 대신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시키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용서해 주고 “큰 거짓말”만 정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가르칩니다(계 21:8).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요한은 이렇게 교훈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 3:15).

죄의 결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에

덴동산에서 쫓겨난 결과 아담은 세월이 지난 후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 후부터 그의 후손들도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반면 육적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죽음을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23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13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바울은 사람들이 모두 육체적으로는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엡 2:1).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골 2:13). 이와 같이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머지않아 육체적으로도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계 21:8).

죄는 유전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죄와 우리 부모의 죄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아담과 부모가 지은 죄를 물려받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들이 지은 죄의 대가만 받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

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이것은 우리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 값을 대신 받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3:23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지적한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지 선조들의 잘못 때문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낳 때부터 아담과 부모의 죄를 이어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죄” 혹은 그와 같은 사상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 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겔 18:20). 이와 같이 갓난아기는 결코 부모의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죄의 교리는 “죄는 불법(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요일 3:4)는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이것은 유전되는 특성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전 방법 등이 유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성이 아니라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갓난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로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3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죄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즉,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고(행 17:29),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창 2:7), 낳 때부터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죄의 기원은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약한 부모에게서는 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병이 있는 부모에게서는 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

습니다. 육체적인 유전은 있으나 죄의 유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죄에 저항력이 없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린아이는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제 16 과

예수 그리스도-죄 사함의 길

만약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가 창조주와 모든 인간 사이에 영적 죽음이라는 큰 틈을 갈라놓았습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케 하신 죄의 치유법에 대해 살펴해보겠습니다.

속죄의 필요성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해 스스로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2)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은 인간이 좋은 일을 많이 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8~9

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판사가 막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이 죄수는 비록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당치 못하므로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히 9:22). 하나님은 왜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요구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속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다스릴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가장 흠이 없고 좋은 동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상처를 입은 동물이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동물은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의 희생제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거듭 되풀이되어 누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3~4에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었으며, 히브리서 10:1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완전한 속죄 제물

동물의 희생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희생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성구 중 하나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16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다 받으시며 약 30년 동안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히 4:15).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셨습니다(벧전 2:22). 예수는 이와 같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류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7~9).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또, 에베소서 1:7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구속의 놀라운 메시지가 위의 구절들에 요약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의미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갠지 못해서 법정 안에 서있는 죄인이 자기 대신 빛을 갠아 주는 친구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 주셨지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사람을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9)라고 기록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가?

예수님께 순종해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셔 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롬 6:3).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정죄함이 없는 곳, 즉 죄 사함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요 3:16), 죄에 대한 회개(행 2:38) 세례에 수반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하지만 요한 일서 2:1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일 2:2).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익힘문제

제 15·16 과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표 틀리면 ×로 답하세요.

- (1)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겔 18:20) ()
- (2)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롬 14:12) ()
- (3) 각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 대가를 받습니다. (고후 5:10) ()
- (4) 우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마 18:3) ()

2. 다음 구절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세요.

- (1)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
- (2)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
- (3)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
- (4)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

보기 : ① 엡 2:8~9 ② 히 5:9 ③ 사 59:2 ④ 히 10:4

제 17 과

옛 언약과 새 언약

미국 개역 표준판(RSV) 신약 성경에 따르면, 새 계약(New Covenant)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New Testament)을 의미합니다. Covenant와 Testament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로 모두 언약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하나의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계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두 번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두 언약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7은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라고 말합니다. 두 언약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옛 계약)

첫 언약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 (2)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 (3) 그에게 땅을 주실 것, (4)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창 12:1~7). 그리고 이 언약의 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창 17:1~14).

이 언약은 수백 년 후에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맺어질 때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을 재확인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규칙들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에는 (1) 돌 판에 기록한 십계명(출 20:1~17, 30:27~28)과 (2) 언약서(출 24:7)라 불리는 율법의 기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존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맺어진 법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맺어진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드려 그것으로 언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히 9:18~21).

이 옛 계약은 몇 가지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1)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유대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 (2) 죄의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 즉 범죄를 더욱 가했다는 것(롬 5:20). (3) 사람들로 하여금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히 10:3). (4)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을 맺을 동안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 즉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것 등입니다(갈 3:19~25).

둘째 언약(새 언약)

새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옛 언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렘 31:31~34).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창 22:18).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을 든다면 첫 언약이 유대 민족과만

맺어진 것인데 비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우주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26~29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와 같이 새 언약은 어떠한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빈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언약은 맺어진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써 맺어졌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졌습니다(히 9:11~15). 새 언약은 옛 언약에서처럼 문자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엄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롬 7:6).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후 3:6). 예를 들면 옛 언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만일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멸시한다 하더라도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요일 3:15). 이와 같이 새 언약에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죽이는 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이전의 올바르지 못한 심리적 상태 또한 금한 것입니다. 즉, 문자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가 무엇인지 그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만 새 언약은 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즉, 옛 언약에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죄 사함 받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잠정적인 언

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의 본성을 들어내어 가르쳐 주었지만 영원히 용서받는 길은 제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전 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어떻게 대체하는가?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가르치셨습니다(마 5:17).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옛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목적이 완성되었으며, 그 율법은 새 계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히 10:9).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롬 7:4, 6).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 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골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엡 2:14~15). 이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있다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말씀들은 또한 안식일(혹은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을 포함하여 옛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신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물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데 주 첫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계 1:10).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

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 달렸던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얻지 않았는가?” 그 강도가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그는 이 약속을 옛 언약이 아직 유효한 때인 그가 죽기 전에 하셨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히 9:17).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그 효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히 13:20). 그러므로 그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마련된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계약을 성취하시는지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제 18 과

교회의 설립

승천하신 10일 후 오순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을 통해 교회의 설립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등이 그것입니다. 교회(church)와 나라(kingdom)라는 말은 동일한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kingdom of heaven) 열쇠를 네게 주리니”(마 16:18~19).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단어를 차례로 사용하셨음을 주목하여 교회 설립에 대해 연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 3:10~11).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교회

다니엘서 2:44에서 다니엘은 느브갓데살 왕의 꿈 해몽을 통해 교회의 설립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그 나라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

교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전도사역을 시작하기 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고 가르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왔다”(마 10:7)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세우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막 9: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눅 24:49).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1)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질 것이라는 점, (2) 교회는 권능으로 세워진다는 점, (3) 교회는 예루살렘 성에서 세워질 것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설립)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목매어 자살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사도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열흘 후(유월절 5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로부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침 9시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였는데 이제야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군중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술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이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

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39). 이와 같이 회개하고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우리 또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약 삼천 명이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때 첫 개종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되었으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구원 얻은 자들로 구성이 되며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주님께 의해서 교회에 더해졌지 결코 믿는 자 자신이 스스로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행 2:42). 여기에서 떡을 떼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위에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협박라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된 그들은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두 번째로 이들을 붙들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림으로써 다시 나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로 다시 잡혀 협박당하고 매를 맞았지만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자기 재산을 팔아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땅을 팔았으나 그 중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쳐 죽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원망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일곱 남자를 택해 매일처럼 돌보는 일을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테반인데, 그는 얼마 후 유대인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

다. 그가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분개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그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테반을 죽일 때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었습니다.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 청년이 바로 위대한 바울 사도입니다.

익힘문제

제 17·18 과

1. 다음 문장에 맞는 답을 고르세요.

- (1)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① 사랑
② 은혜 ③ 믿음]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갈 5:4)
- (2)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① 책 ② 거울 ③ 그림자]입니다.
(히 10:1)
- (3) 바울은 율법을 [① 목자 ② 구원의 길 ③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
였습니다. (갈 3:24)
- (4) 그러나 율법은 아무 것도 [① 더 좋게 ② 온전케 ③ 죄되게] 못
합니다. (히 7:19)

2. 사도행전 2장을 읽고 맞으면 ○, 틀리면 ×로 답하세요.

- (1)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 (2) 이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찢려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
- (3)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
- (4) 교회는 날로 주의 도움 없이도 늘어났습니다. ()

바울의 전도생활

아마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계획에 큰 역할을 차지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교회를 굳게 세운 이가 바울이었고, 신약성서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에서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예루살렘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내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개종케 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보는 내시를 개종케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그 내시는 본국에 돌아가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 땅에 엎드려진 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응하여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까지, 그는 삼일 동안을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한 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사도 베드로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합시다. 룻다에서 그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 병자를 낫게 하였고, 옴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옴바에 있을 때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와서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 가정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한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 그들도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한편 바울과 복음 전도자인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그들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부로 섬을 거쳐 소아시아(지금의 터키)로 가는 길에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계속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전도하는 중 많은 반항과 핍박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곧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일부 유대인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물리치려고 한 것은 모세의 율법의 하나인 할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안디옥에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새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다가 자기들을 떠나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마침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리로 배를 타고 떠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소아시아에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새로 개종한 청년 디모데를 대동하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에 응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마도 이 성은 유럽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곳일 것입니다. 그 곳에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고 하는 부인과 그 가족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텐으로 갔는데 이곳에서 그는 저 유명한 마르스 산상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를 향해 떠나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그는 많은 반대자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와 같

이 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의 옥중 생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 관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의 공회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 심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여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하는 도중 큰 폭풍을 만나 탔던 배는 파괴되고 일행은 멜리데(말타) 섬에 표류하였습니다.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구원을 받고 석달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그가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바울은 주후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복음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전 9:16)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도 받아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지내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고전 15:1~4).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일,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벧전 4:17).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 20 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자

사도행전은 개종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홉 번이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하다 (convert)”는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세속적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종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도시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1세기 사람들의 개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법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9). 순종 그 자체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기 위해 밧줄을 던져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밧줄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건져 주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밧줄을 붙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

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개종의 실례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의 사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아홉가지 개종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이루어진 3000명의 개종(행 2장)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군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행 2:36). 이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행 2:37).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행 2:38). 이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고후 7:10에 의하면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함),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행 8장)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았습니다(행 8:6).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행 8:12).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행 8장)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행 8:38).

다소의 사울(행 9, 22, 26)

사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연관시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추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9:6). 그리하여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16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당시 구원을 받았다면 아나니아가 구태여 후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했을 까닭이 없습니다.

고넬료의 개종(행 10, 11)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10:47).

루디아의 개종(행 16)

빌립보에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디라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행 16:14~15).

빌립보 간수의 개종(행 16)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개종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행 16:30).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대답하고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날 밤에 식구들과 함께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개종(행 18)

고린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사도행전 18: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의 개종(행 19)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례요한의 12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세례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행 19:4~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개종자들이 어떤 명령을 받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로 괄호 안은 사도행전의 장과 절을 가리킵니다.

3000명	듣고(2:37) 알고(2:36) 회개하고(2:38) 세례 받다(2:41)
사마리아인들	듣고(8:6) 믿고(8:12) 세례 받다(8:12)
에디오피아인	듣고(8:35) 고백하고(8:37) 난하 주 세례 받다(8:38)
사울	듣고(22:14) 주의 이름을 불러(22:16) 세례 받다(22:16)
고넬료	듣고(10:33) 믿고(10:43) 회개하고(11:18) 세례 받다(10:47)
루디아	듣고(16:14) 세례 받다(16:15)
간수	믿고(16:31) 세례 받다(16:33)
고린도인들	듣고(18:8) 믿고(18:8) 세례 받다(18:8)
에베소인들	듣고(19:5) 믿고(19:4) 세례 받다(19:5)
위의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 받다.	

위의 아홉 가지 개종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 사함은 위와 같은 순종이 행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위의 아홉 가지 개종의 예를 살펴 볼 때 단지 “경험”, “기도를 통해”, 혹은 “제단”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 얻은 예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익힘문제

제 19·20 과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로 답하세요.

- (1)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하여 믿게한 이들 중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
- (2) 이방인으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이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입니다. ()
- (3)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타나 "이탈리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2. 사도행전 8:26~40을 읽고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로 답하세요.

- (1)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
- (2)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
- (3) 이 사람은 자기가 읽는 성경 구절의 뜻을 빌립이 설명하여 주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
- (4)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때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
- (5) 내시가 세례 받은 것은 학습세례를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
- (6) 빌립은 병거를 정지시키고 잔에서 물을 뿌려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

3. 다음은 각각 누가 세례 받았을 때 기록된 말씀인가요?

- (1)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
- (2)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
- (3)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
- (4) 그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았습니다. ()
- (5) 그들은 마음이 찢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
- (6) 물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
- (7) 수다한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
- (8)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
- (9)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개종하였습니다. ()
- (10)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
- (11)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

제 21 과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히 11:6). 히브리서 11:1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하늘나라가 있으며, 죽음 후에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는 이와 같은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흉수나 우박 등이 갑자기 와서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가 머지않아 수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희랍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믿음(faith)”과 “믿다(believe)”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believe)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faith)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았느니라”(롬 10:17)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성경을 읽던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종류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8:26)라고 하시며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마 15:28)라고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 8:10). 바울은 심지어 산을 옮길만한 믿음(고전 13:2)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그러나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다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믿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요 12:42). 이런 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심판 날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사탄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가진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2:19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사탄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믿음만 있었지 순종이 없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그를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6:26에서 바울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룩한 많은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시하실 때 왜냐고 묻지 않았으며 지체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죄 사함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

해서는 요단강 물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침내 순종하여 물에 일곱 번 몸을 잠그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왕하 5장).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아만이 그 마음을 바꿔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의 문둥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으면 그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6~27). 바울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도록 인도함을 보여 줍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빌립보 간수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행 16:30)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간수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행 16:33, 34). 그는 믿은 후 회개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준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와 세례를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제 22 과

성경적인 세례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만큼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아야 할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세례가 본 장의 주제입니다.

본 장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행해진 세례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1) 세례는 어떤 방법(침수, 약식, 혹은 물 부음)으로 행해졌는가? (2)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3)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4)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먼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된 성령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세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례”라고 언급을 할 때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물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의 방법(형식)

세례의 형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수, 약식(물 뿌림), 물 부음 중 어느 방법으로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혹은 이 세 가

지 방법이 모두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희랍어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세례”라는 단어는 물에 넣다,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요 3:23).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을 머리에 붓는 세례를 행했던 약식 세례를 행했던 시간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침수를 행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마 3:16).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막 1:10).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물 속에서 올라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세례요한이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를 행했다면 그것을 강가가 아닌 허리까지 차는 물 속에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가 침례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한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행 8:38~39). 여기에서 우리는 내시가 침례를 받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장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롬 6:4).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골 2:12). 오직 침례만이 장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시대에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가 행해진 예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물 뿌리는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에 대해 한 구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법의 세례는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례의 목적

사도 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죄 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 죄 사함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1).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롬 3:24)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롬 6:3)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죄 사함은 세례보다 선행될 수 없으며, 세례 후에 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내적 은혜의 외적인 표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

성경이 유아 세례에 대해 가르치는지, 혹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가르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성경에는 이

런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막 16: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8을 보면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 사명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는 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세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행 2:38).

아직 믿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는 유아는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실례, 혹은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듭니다.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9: 14).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한 어린이들은 그에게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주기 위해 어린이들을 내게로 데려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어린이가 선악을 분별하여 죄를 짓게 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만큼 깨끗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예수님이 주신 대 사명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8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의 이름으로”는 “……의 권위로”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멈춰 서라”고 외칠 때 그것은 “내가 법의 권

위로 너에게 명하니 멈춰 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성부)와 아들(성자)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 즉 그의 권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기를 소원한다면 변질된 방법을 따르는 위험함 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익힘문제

제 21·22 과

1.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다음 문장에 맞는 답을 고르세요.

- (1) 믿음으로 아벨은 [① 가인 ② 아담 ③ 노아]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 (2) 믿음으로 [① 아브라함 ② 모세 ③ 이삭 ④ 바락]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습니다.
- (3) 믿음으로 [① 아브라함 ② 야곱 ③ 아담]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 (4) 믿음으로 [① 여리고 ② 벧엘 ③ 베들레헴 ④ 예루살렘]성이 무너졌습니다.
- (5) 믿음으로 [① 느브가 ② 라헬 ③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대접하였습니다.

2. 다음은 각각 성경 어느 부분에 기록된 말씀인가요? (예: 마태복음 1:1)

- (1)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
- (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
- (3)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
- (4)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
- (5)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
- (6)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

(7)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

(8)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

(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 세례를 주라. ()

3.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1) 신약시대에 사용했던 세례의 형식은 ()이었습
니다.

(2) 이 사실은 로마서 6:4에서도 드러나는데 여기서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3) 사도시대에 죄인들은 ()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4)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엡 1:3)

(5) 우리는 ()를 받음으로 ()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 유아는 세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식하고 깨닫
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를 받
아야만 ()을 받는 것입니다.

제 23 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1세기경 그리스와 로마의 우상숭배와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을 교훈하기 위해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서신(편지)입니다. 이 21편의 서신 중 14편은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나머지 7편의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네 명의 저자 이름이 제목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수신하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이 서신들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서신 중에서 네 편은 개인에게 쓴 것이고, 여덟 편은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와 같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설명한 대단히 교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서신들은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

다. 칭찬하는 편지가 있는 반면 어떤 서신은 매우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설교식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 **로마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쓴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로마교회를 세웠는지 다른 사람이 세웠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함이지 행위(혹은 공적)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 점이 바로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나머지 5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후자는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계된 것이고, 전자는 기독교의 교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 **고린도전·후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즉, 교인들의 분열, 근친상간, 형제끼리 송사하는 일, 결혼 문제, 성령의 은사, 부활에 대한 논쟁 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앞서 보낸 서신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가 다소간 올바르게 해결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특별히 감사헌금에 대하여 열거하였으며,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돌보아 줄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에 더해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고, 모세의 율법은 속박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라고 교훈 합니다. 갈라디아서 5:4은 이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잘 말하

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점은 또한 그리스도인
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
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었음을 보여 주
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비판적인 문장이
거의 없고 매우 부드러운 문체로 씌어졌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은 특히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
도의 위대하심(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 **데살로니가전·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입
니다. 여기서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곧 재림하
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도 안하고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파송한 두 젊은
전도자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이 서신들에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
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떻게 장로를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빌레몬서** 이 서신은 1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바울이 개종시킨 오
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보낸 것입니
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
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 주라고 당부합니다.
- **히브리서** 이 서신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찾아볼 수 없어 그의 다른

서신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옛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서신

- **야고보서** 이 서신은 아마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흠어진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약 1:1).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베드로전·후서** 베드로전서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합니다. 본 서신의 제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에 대해 그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땅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 줍니다.
- **요한1·2·3서** 이 서신들은 사도요한이 썼습니다. “사랑”이 요한1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에 “사랑”이라는 말을 44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일 것입니다. 이 서신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쓴 편지인데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본 서신에서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9절)고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으뜸됨을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유다서** 이 책의 저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짓 교사를 경고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24 과

기독교의 권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 본 장에서 우리는 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요한계시록과 기독교의 권위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때때로 이 책을 묵시록(Apocalypse)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책은 사도요한이 썼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사도요한이 그의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밧모섬으로 유배당해 갔을 때 쓴 것입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에 있던 주님의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들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는 매우 칭찬을 들었고, 두 교회는 매우 혹독히 비판을 받았습다. 그리고 다른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요한이 “주의 날”에 본 환상의 기록입니다. 주의 날이란 주

의 첫 날(일요일),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렇게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물과 상징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계 1:1)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이 책은 매우 상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언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이 책의 수신자들인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해한 구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신학자나 대부분의 시간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22장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공과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1). 이것으로써 성경의 모든 기록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약 1900년 전에 완성됐지만 그 영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권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계명들을 오늘날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분열의 원인은 권위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이

들은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권위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성문화된 교리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권위)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증거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마 17:5).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마 7:29)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범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 19~20).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요 16:13).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르쳤으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면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면이나 가르침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지금엔 예수님과 사도들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할 권

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6~8).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외함으로써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요이 9).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뿐만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명령이나 교훈의 본질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시대에 침수로 행했던 세례의 방법을 약식(물 뿌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조, 교리 혹은 신앙 고백 등을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혹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권위로 받아들인다면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신조(교리)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성경과 일치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 세 장에 걸쳐 우리는 신약 교회의 본질에 대해 살펴 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떠한으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해야만 하는지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보여 준 순전한 원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익힘문제

제 23·24 과

1. 다음 질문에 해당되는 바울 서신의 이름을 쓰세요.

- (1) 노예를 형제와 같이 대우해 주라고 부탁한 서신은? ()
- (2) 기근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을 도와 줄 것을 호소한 서신은? ()
- (3)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와진다고 말한 서신은? ()
- (4) 옛 계약을 논한 서신은? ()
- (5) 젊은 전도자들에게 쓴 서신은?
(), ()
- (6)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니라”고 가르친 서신은? ()
- (7)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서신은? ()
- (8)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강조한 두 서신은?
(), ()

2. 다음 질문에 해당되는 서신서를 고르세요.

- (1)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은 [① 요한1서 ② 유다서 ③ 요한3서]입니다.
- (2)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① 요한1서 ② 야고보서 ③ 베드로후서]입니다.
- (3)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불로 화해될 것이라고 말한 서신은 [① 베드로후서 ② 요한2서 ③ 베드로전서]입니다.
- (4) 야고보의 형 유다가 쓴 서신은 [① 베드로전서 ② 요한2서 ③ 유다서]입니다.
- (5) 택함을 입은 여인에게 보낸 편지는 [① 베드로전서 ② 요한2서 ③ 유다서]입니다.
- (6) 역경 가운데서 교회를 위안한 서신은 [① 야고보서 ② 베드로서 ③ 요한3서]입니다.

(7) 흠어진 열두 지파에게 쓴 편지는 [① 야고보서 ② 요한3서 ③ 유다서]입니다.

(8)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① 요한3서 ② 요한2서 ③ 유다서]입니다.

3. 다음 성경 구절의 빈 칸을 채우세요.

(1) 피차의 ()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 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 13:8)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엡 4:2)

(3) 온 율법은 네 이웃 ()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 5:14)

(4)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엡 5:2)

(5) 하나님을 () 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 할찌니라. (요한1서 4:21)

4.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1) 이것은 ()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자기를 알파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요한은 주의 날에 ()섬에 있었습니다.

(4) 주의 날에 요한은 ()에 감동하여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5) 요한은 ()촛대를 보았습니다.

(6) 이 일곱 촛대는 ()에 있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 25 과

교회의 명칭과 통일성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혼돈 상태에서 신약 교회의 본질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앞으로 세 장에 걸쳐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현대의 교파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명칭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남자의 성을 따라 불러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의 명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그리스어로 “부름을 받은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 (the church)”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었습니다. 이 명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우주적인 관점에서 온 세상을 통틀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2) 회중적인 관점에서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의 집단이며, (3) 예배를 위해

함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아무 수식어 없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른 수식어가 붙은 예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곧 성자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1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여러 회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에베소서 5:22~23에서 바울은 교회를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어야만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따라 교회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칭에 대한 다른 예들을 살펴보면 (1) 장자들의 총회(the church of the first born, 히 12:23), (2) 나라(the kingdom, 히 12:28), (3) 이 도(the way, 행 19:9, 23), (4) 믿음의 가정(the household of faith, 갈 6:10) 등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름

다음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여기서 언급하는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 4:16).

제자들을 성도라고도 불렀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롬 1:7).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하므로 성도라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 기구로부터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른 이름을 찾아보면 형제(골 1:2), 택하신 족속(벧전 2:5, 9), 하나님의 후사(롬 8:17)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일치(통일성)

에베소서 4:3~6에서 바울은 분열되지 않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세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많은 몸, 서로 다른 많은 믿음, 여러 가지 세례 등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 같이 교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성부)와 아들(성자)이 하나인 것처럼 그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의 축복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그러나 사도시대에도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

울은 고전 1:11~13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불행한 분열의 원인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지 않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추종한다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당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따르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이 교파적인 이름을 버린다면 분열된 많은 교파들이 하나가 되는 일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신조로 삼고, 성경을 유일한 안내자로 삼아 초대교회와 같은 일치(통일성)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 26 과

교회의 예배와 재정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할 때 “뱀이 그 간계로 이와(Eve)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하노라”(고후 11:3)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가 단순한 것임을 말해 줍니다. 본 장에서 초대교회의 예배와 재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예배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안식 후 첫날(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7에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씌어 있고, 고린도전서 16:2에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군중들에게 설교했던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 날에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이 날을 “주의 날”(계 1:10)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폐해졌습니다. 골로새서 2:14를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삭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핍문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폐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4:24를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in spirit)과 진정으로(진리로, in truth) 예배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령한 마음, 즉,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진리)을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신령으로) 우리나라오는 예배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배드리는 사람이 온 마음과 진정(진리)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가 행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감상적인 노래 등은 참된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사도행전 2:42에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0:7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 날에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주의 만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 “성례전(sacrament)”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주의 첫 날 앞에 정관사 “그(the)”가 붙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첫 날은 매주의 첫 날임이 확실하며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마다 주의 만찬을 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계명 중 “그(the)”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성격이 같습니다. 실제로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신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찬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그의 피를 의

미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이 단순한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고전 14:15)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성경 읽는 것을 통해 사도들의 교훈을 들려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모임(행 20:7)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나 가르침 속에서 정치나 경제적인 내용을 주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서 그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했습니다.(골 3:16) 이들이 노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노래를 말했지 악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초대교회의 음악은 모두 육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악기 음악이 성행했지만 초대교회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악기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주후 670년경이었습니다. 악기를 사용하는 일이 중세 교회에 일반화되기까지는 그때로부터 수백년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 당시 악기를 다른 목적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악기 음악이 배제된 것이 명백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한 재정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재정적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뜻있는 사업에는 늘 그렇듯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라든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일 등을 위해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처럼 재정 확보를 위해 성도들에게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 힘껏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고후 8:1~5), 자원함으로 마음에 정한대로 자유롭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 물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 바울은 “매 주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역자 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신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2)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利)를 얻은 대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바칠 때처럼 정해진 몇 퍼센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이를 얻은 대로(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신 대로) 바친다면 때때로 십분의 일 이상을 드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금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그러므로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은 헌금을 드리기 전 이미 그 마음속에 드릴 금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자원해서 드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 (4)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시에 [① 시와 찬미로 노래했습니다
② 연가를 불렀습니다 ③ 족장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 (5) 전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① 정치 ② 경제 ③ 구원의 길]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 (6) 교회의 재정은 [① 교인들의 것 ② 하나님의 것 ③ 전도자의 것]입니다.

4.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그리스도는 교회의 ()가 되십니다.
- (2) 안식 후 첫날이란 오늘의 ()을 의미합니다.
- (3)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과 ()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 (4) 떡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님의 ()을 의미하고 ()는 십자가 위에서 흘린 ()를 의미합니다.
- (5) 설교의 내용은 ()의 ()을 구원하는 ()의 ()도라야만 합니다.
- (6)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27 과

교회의 조직과 임무

조 직

초대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군주주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15에서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묘사합니다. 그가 자신이 교회의 왕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8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18을 통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 하늘나라가 교회의 본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쓰인 단어대로 우주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우주적인 조직은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각 교회는 행하는 사역에 있어 독립되어 있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종교적 무정부 상태였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자연히

모든 면에서 일치했던 것입니다. 교회들은 독립적이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끈으로 서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도록 서로 도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기록된 책이나 문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즈음에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신약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사도들의 교훈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한 후에도 맛디아를 뽑아서 열둘의 수를 유지하였습니다(행1:26). 그 외의 다른 사도들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직이 세습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순교 당할 때 누가 그 뒤를 이어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행 12:2).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도입니다(행 9:15). 그러나 그의 사도직이 다른 열두 사도 때문에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죽을 때 사도직은 전부 끝났습니다. 사도의 조건으로는 (1) 예수님의 전도 생활을 목격하여 동행하여야 하며, (2)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여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행 1:21~22).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여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들 혹은 감독들

1세기에는 장로들이 각각의 지역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감독, 목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 모두가 교회 내의 동일한 직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고 특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장로라 불렸고, 교회의 일들을 돌보기 때문에 감독이라 불렸으며, 양 무리를 치기 때문에 목사(pastors)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혹은 사도들에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목자로서 그들은 교회를 인도하고 바른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각 교회에 복수의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의 자격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딤후 3:2)이란 말을 통해 바울은 거기에 열거한 자격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장로로 합당치 않음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사들

집사란 단어는 종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명칭이 그들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지도 아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가르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과부들을 돕기 위해 사도들이 일곱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장로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집사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곱 집사 중 스테반은 말씀을 가르치다가 순교까지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간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격요건은 대단히 엄격하였습니다. 바울은 감독이 되려면 모든 일에 흠이 없고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단정해야 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한 아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술에 인박혀서는 안되고, 믿는 자녀를 가져야만 되고,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딤후 1:5~9, 딤후전 3:8~10).

복음 전하는 자(전도자)

한편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도자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젊은 전도자 디모

데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는 권면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일꾼(minister)이었습니다. 이것은 종을 뜻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일꾼이고 전도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자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일꾼입니다.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택하는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머무르며 일하든지 순회하며 전도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도자들을 가르켜 목자들(pastors)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 무리를 치는 자(목자)는 장로이지 전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임무(사업)

디모데전서 3:15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듯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교회의 가장 우선하는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사람을 이끌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는 선교 기구보다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을 때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행 8:4) 된 것입니다. 물론 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제자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들의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전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예루

살렘에 있는 궁핍한 형제들을 위하여 특별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갈 6:10). 야고보서 1:27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종종 이렇게 남에게 봉사하는(섬기는) 것을 통해 가장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 28 과

성령

교회 역사상 성령의 사역만큼 많이 논란이 된 주제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 성령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 우리는 성령에 대한 전혀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본성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주의 영, 보혜사(위안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그러하듯이 인격(divine personality)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마음, 지식, 사랑과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추구할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 분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점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이 영원하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 하시는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혹은 작용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은 성경의 저지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16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했고, 6:19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9~11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2:38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내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와 영적 은사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내재하시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17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강권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갈 5:22 ~23).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특별히 언급된 것은 신약에서 단지 여섯 번입니다

다. 그 가운데 네 번은 세례요한에게 약속할 때 씌어진 것입니다(마 3:11~12, 막 1:8, 눅 3:16, 요 1:33).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5). 이 약속에 대한 성취(첫 번째 성령 세례)는 오순절 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이렇게 성령 세례는 (1)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2) 사도들에게 임하던 것과 같이 불의 혀와 (3) 방언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고넬료의 가정이 개종할 때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과 유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행 11:15, 16).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찾기 위해 그는 수 년 전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가 특별한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처음으로 복음이 큰 무리의 사람에게 전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날에는 유대인에게, 고넬료의 개종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위의 예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 기록된 단 두 가지 실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기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와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게 주어졌던 영의 은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 (신비한 특성을 가진) 믿음, 병 고침, 능력을 행함, 예언, 영을 구별하는 분별력,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입니다. (고전 12:8~10)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1)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2)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기 위해서 (3) 진리를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때였으므로 그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영의 은사들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전 13:8, 10) 이 은사들은 사도들이 안수해 줄 때에만 내렸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이와 같은 권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은사들을 주기 위해서 그 곳으로 갔습니다 (행 8:14~17).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영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행 19:6).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도 주었습니다 (딤후 1:6).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영의 은사를 아직 못 받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영의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롬 1:11). 이와 같은 영의 은사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안수를 통해 이것을 줄 수 있던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령과 개종

성령은 모든 개종에 역사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직접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 하십니다. 예를 들면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의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갔습니다 (행

8:26~39). 성령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점입니다(행 11:14). 그리스도는 다소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때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 그가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게 하셨습니다(행 22:12~16). 오늘날 죄인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혹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익힘문제

제 27·28 과

1.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사도 ()가 죽임을 당할 때 아무도 그의 후임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습니다.
- (2) 장로들은 () 혹은 ()라고 불렸습니다.
- (3) 장로들은 ()에 의하여 임명되었습니다.
- (4) 집사들은 ()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 (5) 전도자는 ()를 했고 영적인 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2. 장로의 자격(딤후 1:5~9)과 집사의 자격(딤후전 3:8~10)을 읽고 다음 자질에 해당하는 것을 역할을 골라 '장로', '집사', 또는 '장로와 집사'로 답하세요.

- (1) ()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 (2) () 단정한 사람
- (3) ()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
- (4) () 믿는 자녀를 둔 사람
- (5) ()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 (6) ()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 (7) ()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 (8) () 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거룩한 사람
- (9) () 절제하는 사람

3.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초대교회는 ()주의가 아니라 ()주의였습니다.

- (2)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의 머리가 되시고 ()의 으뜸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골 1:18)
- (3) 사도직은 ()제가 아닙니다.
- (4)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을 목격하고 예수를 따라 다녀야 하고 그의 ()하심을 목격하여 그 ()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5) 그들은 나이가 () 때문에 장로라고 불렸으며 교회를 돌보기 때문에 ()이라고 불렸고 양을 치기 때문에 ()라고 불렸습니다.
- (6) 집사들은 ()들을 돕고 교회의 세상적인 일을 맡아 보았습니다.

4.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영의 은사 9가지를 쓰세요.

- (1) _____ (2) _____
- (3) _____ (4) _____
- (5) _____ (6) _____
- (7) _____ (8) _____
- (9) _____

제 29 과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분명한 날짜와 시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방법과 재림을 예언한 성경 구절 등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본 장에서는 여기에 관한 논쟁이 아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의 시기

역사상,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연대와 장소까지 예언한 사람들의 주장들은 늘 실패로 끝났습니다.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 바울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도적 같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살전 5:2~3, 벧후 3:10). 그러므로 아무도 그가 오시는 때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 (1)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요 5:25, 28, 29)
- (2)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유 1:14~15)
- (3) 의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마 25:31~34)

(4)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 (마 25:31~33, 41)

(5)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고전 15:24)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을 때 재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3~4).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리라는 점을 말해 줍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벧후 3:4).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마 24:37~44).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그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방법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시겠다는 표현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그의 천사들을 동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27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주님이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말합니다(유 1:14).

고린도전서 15:23은 그가 오실 때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행한 사람은 일어나지 않고 의를 행한 사람만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한편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각각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두 주장 모두 그릇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 그러므로 재림 때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동시에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주의 재림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4:16~17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를 보면 그리스도는 (1)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2) 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3)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집니다. (4) 그리고,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모두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 후 3:10~13).

어떤 사람들은 재림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문자 그대로 천년동안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 예수님이 이 지상

에 발을 다시 디디시겠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2) 천년왕국설에 의하면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에 시간 차이가 나와 하는데 앞서 살펴 본대로 이 주장은 모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요 5:28~29) (3)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 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대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의인들은 오른편에 서고, 불의한 자들은 왼편에 섭니다. 의인들은 천국의 영원한 집을 상으로 받고, 불의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마 25:31~46). 이 심판은 두 번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그리스도는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실 것입니다. 사망을 비롯한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신 후에 이제까지 세상을 다스리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고 하나님 밑에 자기 자신을 예속시키실 것입니다(고전 15:24). 그때는 의로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고, 주께서 속히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속히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제 30 과

영원한 형벌과 보상

죽음 후에도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초석이 될 만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입니다. 내세나 보상이 없다면 아무도 성경을 믿고 싶은 생각이 안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 시에 주님 앞에 서야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형벌대신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26).

영원한 형벌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희랍어로 “흰놈” 혹은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희랍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흰놈 골짜기를 지옥(hel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후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 골짜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놈이나 게헨나로 불리는 희랍어 단어는 지옥이란 뜻과 같습니다. 희랍어로 지옥을 가리키는 말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처소를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영어성경(KJV)에는 헤데스(hades)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헨

나(Gehenna)와 헤데스(hades)를 혼동해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말할 때 쓰이는 지옥(hell)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게헨나)이란 단순히 죽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지옥은 거기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hell(지옥)이란 말과 hades(헤데스)란 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무서운 골짜기를 의미하고, 헤데스(hades)는 죽은 자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을 풀무불로 묘사하기도 하셨습니다.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마 13:42, 49, 50). 그러므로 지옥은 일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같은 모든 육체가 소멸되는 곳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다음 말씀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막 9:43, 48).

이 불은 정말로 꺼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란 영원한 곳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1, 46).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어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마 8:12).

아마 지옥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합니다. 요한계시록 19:20에서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이 문자적인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 성격이 어떻든지 그곳은 괴로움을 받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양심의 괴로움을 받는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더 나아가 이 괴로움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 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여기서 지옥은 “사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 영원한 격리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연옥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지도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가 자손들이 기도해 주고 헌금을 바치면 그 공로로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성경에는 그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보상

천국의 영원한 집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곳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불리는 본향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 세상의 언어로 적절하게 묘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정방형으로 된 것으로 그 둘레에는 벽이 있는데 열두 문이 있어서 한편에 문이 셋씩 있습니다. 벽의 기초는 열 두 개의 보석으로 되었고, 각 문들은 모두 진주로 되었습니다. 이 도성 안에는 큰 길이 있고 그 길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시작되어 도성 한 가운데로 흐르고, 그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열두 종류의 과일을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시므

로 그 영원한 집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곳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천국에는 기분 나쁜 것이나 즐겁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눈물을 거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끊임없는 기쁨과 안식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도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태양이나 달빛으로 이 도성이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서 빛을 비춥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어느 구절도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8:11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마 8:11). 부활의 몸은 현재의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영적인 몸)입니다(고전 15:44). 아무도 영적인 몸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부패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택하느냐 지옥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 결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려는 결심이 섰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분에게 이런 결심이 서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가 되신다면 본 과정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익힘문제

제 29·30 과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 로 답하세요.

- (1)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때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
- (2)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
- (3)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
- (4)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세상은 불로 화합니다. ()
- (5) 잘못된 사람만 심판대 앞에 섭니다. ()

2. 고린도전서 15:20~28을 읽고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 열매인 그리스도요 ()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 (2)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와 모든 ()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께 바칠 때라.
- (3) ()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을 얻으리라.

3. 다음은 주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차례대로 번호를 쓰세요.

- (1) 죽은 자와 산 자는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다. ()
- (2)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
- (3)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 ()
- (4)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

(5)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

4. 마태복음 25:31~46을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고르세요.

- (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① 민족 ② 의로운 사람 ③ 불의한 사람]을 모으실 것이다.
- (2) 그는 [① 양과 염소 ② 소와 나귀]를 가름 같이 사람들을 가를 것이다.
- (3) 의로운 자는 [① 우편 ② 좌편]에 서게 될 것이다.
- (4) 그리스도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① 천국 ②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 (5) 주님은 의인들은 [① 지옥 ②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5.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 (1)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2) 주님 재림의 날과 그 ()는 아무도 모르되 하늘의 ()들도 ()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 (3) 주님의 재림은 ()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 (4)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대 ()이 있습니다.
- (5) 심판 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께 돌려 드리십니다.

성경 **STUDIES IN THE BIBLE** 연구

저자 Monroe Hawley

편저 성경통신교육원

발행 도서출판 바이블링크

등록 제 11-137, 1997년 7월 21일

주소 (157-600) 서울시 강서우체국 사서함 54호

전화 (02)2662-0793, 2662-8081

팩스 (02)2662-8082

홈페이지 bible.kr

이메일 bcc@bible.kr

1964년 7월 초판 발행

2010년 1월 22판 발행

이 책에 실린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